

배포일시	2020. 4. 16.(목) 10:00 (총 4매)	보도시점	2020. 4. 16.(목) 14:00
담당부서	대변인실	담당자	과장 이은정 사무관 노성운
		전화번호	02-2181-0362

**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지키며,
신비한 기상기후사진 관람해요!**

- 기상청,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적극 실천한 ‘기상기후사진 전시회’ 개최
- 1차(서울역) 4월 20일~26일 / 2차(수서역) 5월 11일~17일 개최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날씨를 담은 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’를 개최한다.
- 1차 전시는 4월 20일(월)부터 26일(일)까지 서울역(3층 대합실)에서, 2차 전시는 5월 11일(월)부터 17일(일)까지 수서역(1층 대합실)에서 개최한다.
- 특히,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를 적극 실천하고자, △작품 거리 2m이상 △적정 인원 통제 △마스크 필수 착용 △손 소독제 비치 등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.
- 전시 작품으로는 진귀한 기상현상인 용오름을 잘 담아낸 △쌍용오름(김택수, 대상)과, 한편의 그림 같은 안개 속 도시를 보여준 △안개도시(방춘성, 금상) 등 사진 35점과,

- 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눈의 모습을 담은 △설중매(최영아, 특별상), 안개가 폭포처럼 흐르는 장면을 담은 △안개폭포(우태하, 입선) 등 타임랩스* 3점을 함께 전시한다.

*타임랩스: 정상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특수영상 기법

- 이외에도 ‘제12회 기후변화 주간(4. 13.~4. 28.)’에 맞춰 전시 공간 내에 ‘빗방울, 폭풍, 바람’ 등을 영상과 음향으로 표현해, 보는 재미와 함께 관람객이 기상기후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전시회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, 아름다운 기상기후 현상을 담은 사진들이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.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: 1. 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전’ 전시회 주요 작품
2. 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전’ 전시회 포스터



|쌍용오름(대상 / 김택수 作)|



|안개도시(금상 / 방춘성 作)|



|구름모자 쓴 독도(은상 / 우태하 作)|

